



영화 '군함도'는 류승완 감독의 신작, 화려한 출연진, 역사의 아픔이 담긴 시대적 상황 등으로 시선을 모았다. 7월 말 개봉을 앞두고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군함도'의 주역들. 왼쪽부터 황정민, 아역 김수안, 류승완 감독, 소지섭, 이정현, 송중기. 김진희 기자 kwangshin00@donga.com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부끄러웠다”

- '군함도' 출연진

7월 개봉영화 '군함도' 제작보고회

일제시대 조선인 탄광 강제징용 소재 류승완감독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영화 '군함도'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재와 순제자비 220억원 규모, 스타급 배우들과 류승완 감독의 신작으로 올해 한국영화 기대작으로 꼽힌다. 7월 말 개봉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도 주연 배우와 제작진은 작품에 갖는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류승완 감독은 “서스펜스와 활력, 박력을 중요하게 여겼다”며 “개봉 후 관객이 느낄 영화적 쾌감이 클 거라 믿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왜 '군함도'인가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남단의 외딴 섬이다. 1940년대 조선인이 대거 강제징용돼 해저 1000미터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한 곳이다. 일본은 이곳을 산업화의 상징처럼 국가 제사회에 올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켰다.

영화 제작은 류승완 감독이 4~5년 전 본 장의 사진에서 시작했다. “군함도 항공 사진의 기괴한 이미지에 압도당했다”는 감독은 “그곳에 살던 조선인에 대한 궁금증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춘천 야외세트에 축구장 2개 면 크기에 실제 군함도를 3분의2 수준으로 복원했다. 류승완 감독은 “배우들이 블루스크린 앞에서 연기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관객 역시 영화를 본 뒤 마치 두드러 맞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화려한 출연진... “몰랐던 역사에 부끄러움”

영화의 배경은 1944년 봄부터 해방을 앞둔 이듬해 여름까지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지만 제작진은 시대와 배경, 공간만 차용할 뿐 인물의 사연은 상상으로 창조했다. 주요 인물은 다섯명. 큰 돈 번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 온 악단장 황정민과 그의 딸 김수안, 종로 뒷골목 ‘주막’ 소지섭, 군함도에 잡힌 광복군 송중기, 위안부 이정현이다. 제작보고회에서 이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부끄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출연진 가운데 ‘태양의 후예’ 신드롬의 주역 송중기가 단연 주목받는다. 슬한 영화 제안을 받고도 ‘군함도’를 택한 이유에 대해 송중기는 “소재의 진중함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며 “엄청난 예산의 상업영

화이기에 관객이 그만큼 재미를 줄 수 있나 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베테랑’ 그 이상?

류승완 감독은 1300만 흥행작 ‘베테랑’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선 약자의 한판승을 그렸다. 이번에는 일본 제국주의 잔혹성을 드러낸다. 영화 제작 소식이 일본 극우세력 이 이미 불편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상황. 후지TV, 아사히신문 등도 이날 제작 보고회를 찾았다. 류승완 감독은 ‘군함도’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이웃으로 관계가 풀리길 바라지만 감을관계가 아닌 만큼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나아가야 한다”며 “이 영화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자, 전쟁이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지 말하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0124@donga.com

최무성, 신원호PD 손잡고 ‘응답’ 영광 재현?

tvN 수목드라마 ‘감옥’ 10월 방송 예정

연기자 최무성과 신원호 PD가 ‘응답하라 1988’의 영광 재현에 나선다. 15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최무성은 10월 방송 예정인 신원호 PD의 신작인 케이블채널 tvN 수목드라마 ‘감옥’에 출연한다. 지난해 1월 성공적으로 종영한 ‘응답하

라 1988’ 출연자 중 유일하게 캐스팅돼 두 번째 호흡을 맞추게 돼 관심을 모았다.

‘감옥’은 감옥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신원호 PD가 ‘응답하라 1988’ 등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 감정을 드러냈던 휴머니즘에 주목한다. 극중 최무성은 수용실의 죄수 가운데 우두머리 역할인 ‘감도



최무성

장’을 맡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신 PD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관계자는 “신 PD가 최무성에게 직접 전화해 출연을 요청했고, 최무성도 신 PD와 맺은 좋은 인연에 흔쾌히 응답했다”고 말했다. 최무성에게 신 PD는 잊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응답하라 1988’을 계기로 영

화에서 주로 활동해왔던 영역을 안방극장까지 넓혔다. ‘응답하라 1988’에서 최무성은 아들 최백(박보검)을 홀로 키우는 우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 큰 명치로 중년의 순애보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후 KBS 2TV ‘합부로 애틋하게’와 MBC ‘역도요정 김복주’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현재 MBC 월화드라마 ‘파수꾼’에 출연 중이며, 7월11일 종영 후 집안의 휴식을 취한 뒤 ‘감옥’ 촬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백송미 기자 bsm@donga.com

TV 프로그램 16일 (금)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June 16th (Friday).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Program Name, and Broadcast Status. Includes sub-sections for '오늘의 채널A' and '밤 한번 먹자'.

위클리 만담

연예계 안팎에서 한 주 동안 벌어졌던 다양한 이슈를 논평합니다.

탐·기주봉...연예계 매아닌 대마초 강풍

●...대마초가 이렇거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었다. 빅뱅 탐의 대마초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견배우 기주봉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가인도 지인이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폭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예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재검 받은 서인국 ‘골연골병변’ 5급판정



서인국

●...가수 서인국이 재검에서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전신근로역이어서 전시 상황 등에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개인정보이지만 연예인이라는 ‘숙명’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적극 공개. 반면 5차 재검까지 받은 유아인은 아직 캄캄무소식.

하리수-미키정 이혼에 누리꾼들 탄식

●...하리수와 미키정의 이혼 소식이 유난히 안타까움이 컸다. 온갖 비난과 질타 등 험난한 과정을 뚫고 부부의 연을 맺었기에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랑의 최대 적은 또 다른 사랑. 새로운 사랑을 찾아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엑소가 돌아온다

1년만에 컴백...내달 중순 새 앨범 발표

올해 여름에도 엑소가 뜬다. ‘최강 아이돌’로 꼽히는 엑소가 7월 중순 새 앨범을 발표하고 1년 만에 돌아온다. 일찌감치 타이틀곡을 확정할 엑소는 현재 신곡 출연에 한창이다. 다음주에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며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엑소는 작년 8월 3집 리메이크 앨범 이후 세 번째 월드투어에 나서 국내외 팬들을 만났다. 데뷔 이후 매년 여름 활동하며 ‘여름 그룹’으로 주목받은 엑소는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사냥에 나서게 됐다. 엑소는 5월28일 열린 세 번째 월드투어 서울 앙코르 공연을 앞두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타이틀곡이 이미 나온 상태다. 소속사 관계자들도 흡족할 만한 노래다”며 컴백을 귀땀만 바 있다. 아울러 “한여름 더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 더워’ ‘더워’ 아닌가. 이게 신곡의 힌트”라며 궁금증도 키웠다. 이 때문에 엑소 팬들 사이에서는 새 앨범 타이틀곡 제목을 ‘전쟁’이란 뜻의 ‘더 워’(The War)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데뷔 5주년을 맞은 엑소는 이번 앨범으로 ‘5년 연속 음악시상식 대상’이라는 대기록을 노린다. 2012년 1월 데뷔해 이듬해부터 앨범 아시아안무직어워드(MAMA), 멜론뮤직어워드, 골든디스크대상, 서울가요대상 등 주요 음악시상식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단일가수 최초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6회 공연’ 기록까지 후배들의 거센 도전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연기자 최무성과 신원호 PD가 ‘응답하라 1988’의 영광 재현에 나선다. 15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최무성은 10월 방송 예정인 신원호 PD의 신작인 케이블채널 tvN 수목드라마 ‘감옥’에 출연한다. 지난해 1월 성공적으로 종영한 ‘응답하

‘밤싸남’에 등장한 걸그룹 멤버는?

‘밤 싸는 남자들’(일명 ‘밤싸남’)에 미모의 걸그룹 멤버가 등장한다. ‘맛있는 토요일 밥 한번 먹자’의 두 번째 코너 ‘밤 싸는 남자들’에선 MC 김일중과 김재우가 세 곳의 맛집을 찾아가 음식을 맛본 후 이를 의뢰한 연예인을 추리한다. 걸그룹 ‘덕후’ 김일중은 일부러 답을 틀려서라도 의뢰인에게 배달을 가겠다고 나선다. 과연 걸그룹 멤버는 누구일까?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Night Eating Men' (밤 한번 먹자) on June 17th (Saturday).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Program Name, and Broadcast Status.